

HIV감염인 6천명 시대 도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에이즈 감염인이 나타난 것은 1985년이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올해 에이즈 감염인구는 6,000명으로 훌쩍 증가했다.

아시아의 감염인구 증가 추세에 비춰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에이즈 증가 양상이 낙관적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성문화의 이종성이 두드러지고, 콘돔 사용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에이즈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에이즈 문제는 다시 우리 사회의 핵심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2008년 말 에이즈 통계가 발표되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작년 말로 국내에서 첫 HIV 감염인이 발견된 이후 23년 만에 누적 감염인 수가 6천명을 넘어섰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2008년 한 해 동안 신규 HIV감염인 797명이 발견되어 12월 말 현재 누적 감염인 수는 6,120명이며, 이 중 1,084명이 사망하고 5,036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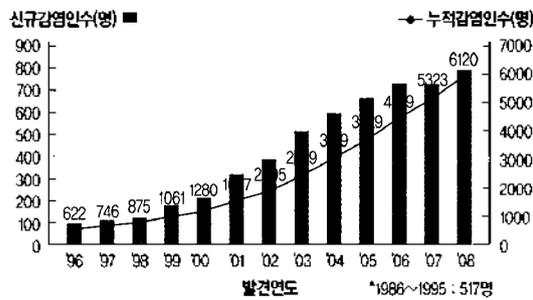
2008년도 신규 감염인의 성별은 남성이 743명(93.2%), 여성이 54명(6.8%)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4배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 감염인 중 감염경로가 밝혀진 459명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었다.

신규 감염인의 연령분포는 주경제활동 연령층인 20~40대가 584명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10대 감염인이 20명이 발견되어 2.5%를 차지하였으며, 60세 이상 노령층도 56명이 확인되어 7.0%를 차

지하였다. 연도별 HIV감염인 발견 증가율은 2001년에 49%로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오다가, 지난 2007년 한해에는 -0.8% 증가율로 최초의 감소세를 보였던 것이 2008년(797명)에는 전년(744명) 대비 7.1% 증가된 경향을 보였다.

사실 HIV 감염인 발견을 증가는 실제 감염인구 규모를 예측하는데 유효한 정보는 아니다.

연도별 내국인 HIV감염 발견현황(1996~2008)



연도별 내국인 HIV감염 발견 현황(1985~2008)

2008년 12월 말, 단위: 명

구분	계	'85~'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6,120	51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4	610	680	750	744	797
남성	5,604	453	93	107	111	160	194	292	363	502	557	640	688	701	743
여성	516	64	12	17	18	26	25	35	35	32	53	40	62	43	54
전년대비 증가율(%)			-1.9	18.1	4.0	44.2	17.7	49.3	21.7	34.2	14.2	11.5	10.3	-0.8	7.1

에이즈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는 것 역시 에이즈 감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도 대상자와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0%나 나타나고 있다. 에이즈는 콘돔을 사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낮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007년에 실시된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조사기관 : 질병관리본부)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확인하고자 자발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14.7%)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감염인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후 무증상 잠복기를 거쳐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질병이 발생하고서야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게 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에이즈 감염인으로 발견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감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8년 8월 UNAID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염인구는 평균잡아 13,000여 명으로 추계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 인구가 현재로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낮지만 에이즈 감염 확산의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연도별 내국인 HIV감염 발견 현황(1985~2008) 단위:명

구분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 (명)	백분율 (%)	감염인수 (명)	백분율 (%)	감염인수 (명)	백분율 (%)
계	5,136	100.0	4,692	100.0	444	100.0
이상간성접촉	3,075	59.9	2,641	56.3	434	97.7
동성간성접촉	2,007	39.1	2,007	42.8	0	0.0
수혈/혈액제제	46	0.9	40	0.9	6	1.4
혈액제제	(1)	(0.3)	(1)	(0.4)	(0)	(0.0)
국내수혈 ¹⁾	(16)	(0.3)	(11)	(0.2)	(5)	(1.2)
외국수혈	(13)	(0.3)	(12)	(0.3)	(1)	(0.2)
수직감염	6	0.1	2	0.0	4	0.9
마약사용자	2	0.0	2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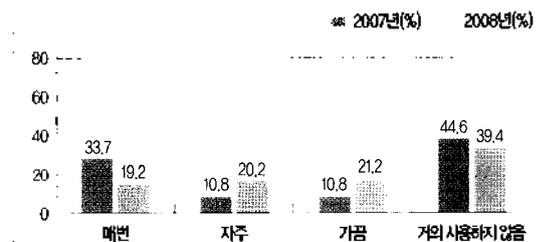
*감염경로가 밝혀진 5,136명에 대한 통계임 (기타, 무응답 등은 제외)
¹⁾ 국내수혈 : 현혈액 모두 HIV선별검사서 음성으로 나온 경우임

한편으로 에이즈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는 것 역시 에이즈 감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도 대상자와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질병관리본부, 2008)에 따르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0%나 나타나고 있다. 에이즈는 콘돔을 사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제 생

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낮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 인식에 있어 같은 내용의 2007년 조사결과에 비해 별다른 개선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외도 상대자와 콘돔 사용 여부¹⁾



국가별 에이즈에 대한 차별의식 정도²⁾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1999년	2006년	1992년	2007년	2008년
가족에서 추방	-	-	-	24.3	23.7
직장에서 추방	18.6	8.0	-	26.7	30.0
지녀의 같은 학교 불가	14.9	-	20.7	44.4	44.6
사회적 격리 필요	-	-	5.6	36.5	41.5

이제 에이즈는 당뇨·고혈압과 같이 '만성질환화' 되어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한다면 건강인과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질병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조기검진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개정(2008.3.21)하여 익명검사를 법제화하고, 전국 보건소 및 에이즈 검진 상담소 등에서 자발적인 에이즈 검사활성화를 위해 무료의 명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4

1), 2)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2008' 질병관리본부, 월드리서치 조사)